

●●● 윤 홍 근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장 / (주)제너시스 회장

생산자들과의 연대강화,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확대 주력



(주)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장에 취임한 윤홍근 회장

조류인플루엔자 극복, 재기의 발판 마련

윤홍근 회장은 지난 연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위기를 맞았던 양계업계가 정부를 비롯, 생산자, 소비자들의 협조로 다시 재기를 할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가 지난 9월 9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는 지난 연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치킨업체들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치킨외식업계는 물론 전체 육계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본고는 동협회 윤홍근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협회 활동방안과 국내 최대의 닭고기 외식업체인 (주)제너시스를 이끌고 있는 경영 이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윤홍근 1984 (주)미원 마니커 재직 및 신규사업 'BBQ' 개발
1995 (주)제너시스 설립 / 대표이사 취임
1998 (사)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장 취임(현)
2003 서울 상공회의소 제18대 의원(현)
2003 제30회 상공의날 동탑 산업훈장 수훈
2003 한국유통클럽 회장(현)
2004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장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협회가 탄생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 동협회의 발전은 물론, 국내양계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회장은 국내 시장의 흐름은 생산위주에서 유통위주로 흐르면서 이제는 만들면 팔리는 시대를 고집하기 보다 소비자들의 편에서 닭고기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과 소비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생산자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현판식 후 기념 촬영(좌부터 한형석 한국계육협회장, 윤홍근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장,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국내 닭고기 소비 확대 노력

앞으로의 협회 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협회 기반구축 및 협회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31개 회원사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업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폭넓은 회원사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중, 장기적으로는 협회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대정부 지원체제구축 및 협회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궁극적으로 국내 닭고기 소비확대를 통해 국내양계 산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경영이념 도입

윤홍근 회장은 국내 최대의 치킨외식업체인 (주)제너시스를 이끌어오면서 국내 닭고기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그룹 제너시스는 2004년 8월 현재 치킨전문점 BBQ 1650개점, 참숯닭불구이전문점 닭익는마을 150여 개점, 우동·돈까스 전문점 U9 50여 개점, 아찌 60여 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이전에 세워진 치킨대학은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을 위한 연수원과 제품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소 및 대규모 연수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을 거처가는 연수생들만 연간 3,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윤회장은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라는 경영 이념을 도입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였다. 프랜차이즈 유통 시스템의 구조상 어느 한쪽만 흥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는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성공경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또한 2003년부터



이전에 위치한 제너시스치킨대학은 BBQ의 맛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람이다.

“고객이 원하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를 제 2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 전 브랜드 내에 ‘고객서비스경영팀(CS팀)’을 신설하고 소비자, 가맹점, 본사를 잇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최우선 정책을 전개해 오면서 지금의 제너시스를 발전시켰다.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야심

윤회장의 앞으로의 목표는 (주)제너시스가 2020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5만개의 매장을 개설하여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드는 일이다.

일단계 계획인 중국 시장 진출은 2003년에 현실화 되었고,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전역에 1만개 매장을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에는 유럽과 남미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스페인에 진출하며, 하반기에 마드리드에 1호점이 개점될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동남아와 미주 등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갖고 있다.

‘BBQ’와 ‘닭익는 마을’ 닭고기 소비 신장 이끌어

(주)제너시스의 치킨관련 유명 브랜드는 BBQ와 닭익는 마을이다.

BBQ(치킨전문점)는 1995년 최초 설립 후 4년 만인 1999년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했고 2003년에는 매출액 3,700억을 달성하였다. 2004년에는 국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6월을 시작으로 매 월 최고매출액 갱신을 기록중이다. 이를 발판으로, BBQ는 현재 일일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10%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닭익는마을 브랜드는 1999년 1호점을 개점 후 현재 150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닭익는마을은 기존의 삼겹살이나 갈비 등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닭고기를 이용한 신개념 구이요리를 선보여 왔다.

윤홍근 회장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의 ‘적색육(Red Meat)’이 암발생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닭고기는 ‘1고3저 식품’으로서(고단백,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저지방) 건강에 매우 유익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대인들의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육계산업의 희망을 제시하였다.(정리 | 김동진 차장) **양계**